

9/27/19

설교 제목: 모든 계명 중에 첫째 계명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마가 복음 12 장 28-34 절

- (막 12:28)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아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 (막 12:29)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신 6:4 이하
- (막 12:30)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절관주** 고전 13:13
- (막 12:31)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레 19:18
- (막 12:32)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절관주** 막 12:29
- (막 12:33)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 (막 12:34) 예수께서 그가 지혜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직전에 예수님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관해 유치한 이야기를 꾸며 질문을 하자 너희가 오해하고 있다고 하시며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으로 인정하고 읽고 있는 모세 오경에도 부활이 나와 있는 것을 모르느냐고 하시며 모세 오경 중에 부활의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을 인용하셨습니다. 또한 부활 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부활한 인간은 더 이상 생육할 필요성이 없어져 정욕도 없고 그러니 시집 장가 가는 일도 없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간계를 가지고 접근했던 사두개인들이 묵사발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 서기관이 있어 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 서기관은 다른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온 자입니다.

그 사실은 마태 복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22:34)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마 22:35) 그 중의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당했다는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의논하기 위해 모였는데 이 서기관도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마태는 이 서기관을 율법사라고 지칭했습니다.

서기관은 원래 글을 기록하는 사람으로 구약 시대에는 주로 제사장의 직무를 기록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율법사 또는 율법 학자로 불렸습니다.

이 서기관은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것 같은 질문들에 예수님이 지혜롭게 답변을 하실 뿐만 아니라 도리어 질문을 한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을 목격하고 놀랍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자신이 평소 깊이 생각해 왔던 질문을 던집니다.

(막 12:28)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아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그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는 계명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서기관의 질문에 예수님은 수많은 계명들을 정리해 율법에 함축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간단 명료하게 나타내 보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율법의 참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의를 얻기 위한 조건으로 생각하여 율법을 지키는 것이 참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마침내 율법을 외식으로 지키는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율법은 의를 얻기 위한 조건의 법이 아니고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사랑의 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의 근본 정신은 오직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율법 정신을 서기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밝혀 주십니다.

(막 12:29)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막 12:30)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막 12:31)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첫째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율법들이 있지만 그중 가장 근본이 되는 율법은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을 보면 일계명부터 사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오계명부터
십계명까지는 사람에게 대한 계명입니다

모세 십계명입니다.

(출 20:1)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출 20:2)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출 20:3)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출 20:4)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출 20:5)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출 20:6)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출 20:7)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출 20:8)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출 20:9) 옛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 (출 20:10)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와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 (출 20:11) 이는 옛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 (출 20:12)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 (출 20:13) ○살인하지 말라
- (출 20:14) ○간음하지 말라
- (출 20:15) ○도둑질하지 말라
- (출 20:16)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 (출 20:17)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입니다.

1. 하나님 사랑

예수님은 먼저 '이스라엘은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언약 관계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시라는 의미와 함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언약 관계가 맺어졌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목숨까지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순교적인 사랑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관계가 맺어져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따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를 유지하며 살았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관계는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영생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진 인간은 그 죄값으로 영원히 죽을 수 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인간이 당신께 불순종한 죄를 묵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의와 함께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인간이 영원히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 앞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살리는 한 프로젝트를 만드셨는데 그것이 바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에 보내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다시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을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당신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영원히 살 수 있게 하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에 보내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당신이 먼저 당신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인간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인간을 향하여 당신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요일 4:19)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2. 이웃 사랑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나는 질문에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첫째가 무엇이나는 질문에 첫째 둘째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첫째가 무엇이나는 질문에 첫째 둘째를 말씀하셨을까요?

마태 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 22:36)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마 22:37)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마 22:38)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마 22:39)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예수님은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계명도 그와 같다고 하시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별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것과 같은 자기 동족이나 특정한 민족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말씀하신 이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일상 생활 중에서 만나는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죄성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인간에 대한 사랑도 없어졌습니다.

그러기에 사랑의 법인 율법이 정죄의 법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희생하게 함으로써 인간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으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이 일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만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일입니다.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는 마음과 지혜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이나 기타 제물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막 12:32)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막 12:33)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서기관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보는 앞에서 이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이 평소 생각해 왔던 것과 일치하자 내심 고무되어 용기를 내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의 지혜롭고 용기있는 대답에 칭찬을 해 주십니다.

(막 12:34) 예수께서 그가 지혜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은 서기관이 진실하고 영적 분별력이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님과 논쟁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내재하고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조건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채우고 흘러 넘쳐야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 장 말씀을 봉독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 (요일 4:7)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 (요일 4:8)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 (요일 4:9)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 (요일 4:10)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 (요일 4:11)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 (요일 4:12)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 (요일 4:13)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므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